

농림축산식품부

**미국산 가금, 가금육 등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미국에서 H7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1월 16일자로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미국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칠면조 농장(6만 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7N8형)가 확인(1.15)되어 방역당국이 해당농장의 가금 살처분, 주변 10km지역 내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강화된 예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금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며,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되었다.

※ 미국에 대하여 2014년 12월 18일 고병원성 AI(H5N2, H5N8형) 발생으로 가금, 가금육 등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청정성이 확인된 15.11.19일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한 바 있음

※ 수입재개 이후 국내로 수입된 미국산 가금 및 신선 가금육은 없으며, 열처리 가금육 4,484톤 수입, 병아리 3건 67천 마리 검역 중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 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15~'16년 HPAI 발생국 현황(총 5개 대륙, 27개국)
아시아(한국, 미얀마, 베트남, 부탄, 인도, 중국, 캄보디아, 대만, 라오스, 홍콩), 유럽(불가리아, 터키, 독일, 영국, 프랑스), 미주(멕시코, 캐나다, 미국), 아프리카(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중동(리비아,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AI 검사 담당자 진단 역량강화
교육**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는 지난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시·도 AI 검사기관 17개소의 진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AI 실시간유전자진단법(real-time RT-PCR) 실습 교육 및 고위험병원체 생물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AI 상시예찰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 AI 검사 담당자들의 진단역량을 강화하고 실시간유전자진단법의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단 표준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 AI 검사 담당자들을 위한 생물안전 교육도 병행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였다.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 전문가(윤혜선 박사)를 초빙하여 생물안전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AI 진

단기관의 실험실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번 교육은 생물안전관리 전문가의 기술적 노하우를 직접 전수하고, 아울러 실제적인 실습교육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더불어 교육 참가자 간의 정보 공유와 소통하는 기회가 되어 정부 3.0 정책의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시·도 AI 진단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AI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과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교육 콘텐츠 개발과 맞춤형 교육을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AI 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숙련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실험실 정도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지자체의 AI 진단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적발 건수 중 식품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기본안전수칙' 위반 건수는 1,144건이었다.

업체들의 '기본안전수칙' 위반 유형은 이물혼입(291건)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61건) > 위생교육 미이수(149건) > 종사자 건강 미실시(120건) >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94건)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64건) 순이었다.

지난 해 전국 식품감시 공무원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총 45회, 4,937명 참여), 지도·점검 시 '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였다.

또한 '15년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한 가공식품 73,298건을 수거·검사하여 224건이 부적합되어 회수 등의 조치를 하였다.

부적합율이 높은 식품유형 및 주요 항목은 절임 식품 중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빵·떡류 중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건포류 중 식중독균 검출 등이었다.

부적합 판정된 위해식품은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판매 차단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회수·폐기하였다.

식약처는 지난 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점검과 가공식품 수거·검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16년 업체에 대한 점검은 '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그 동안의 점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위생취약 또는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파급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과 수거·검사를 선택·집중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선택과 집중의 지도·점검,
기획 수거·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5년(11월말 기준) 식품제조·가공업체 27,740개소를 위생 점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823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15년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업소수는 12월 자료에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들이 있어 11월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일 업체를 중복 점검한 경우 각각을 한 개소로 산정하였음

- * 기획점검 : 위반율이 높거나 식품사고 시 파급력이 큰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등
- * 특별점검 : 사회적 이슈 및 위생취약 시설로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원, 농·수산물 단순 가공업체 등
- * 정기점검 : 계절적 특정 시기인 하절기,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 설·추석 명절 성수식품 등

점검 결과 ‘기본안전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계도)문을 발급하여 행정처분 이전인 명령기간 내에 반드시 원인을 찾아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그 외 위반 사항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적발되는 업체는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하여 연 4회(분기별 1회) 점검할 계획이다.

수거·검사는 그간 물량 위주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최근 급변하는 식생활 문화·환경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고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기획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 다소비 식품을 중점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확보와 불량식품 근절은 정부의 관리·감독 못지않게 영업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16년은 '기본안전수칙'이 모든 식품 취급 영업자의 마음속에 뿌리내리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는 농업 연구 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농업 기술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최신 농업 소식, 기술 콘텐츠를 통합·연계해 한 번에 제공한다.

농업인과 도시민 등 고객의 관심과 접근성을 고려해 영농 기술, 농자재, 농업 경영, 교육, 지역 정보, 생활 문화 6개 기술 유형으로 분류하고, 약 500만 건의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누리소통망서비스(SNS)를 활용하는 선도농업인의 게시글과 민간포털의 농업 주요 현안 등을 실시간 수집·분석해 영농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 정보 서비스도 갖췄다.

‘농사로’ 검색 포털은 품종부터 유통, 소비까지 영농 단계별로 12개의 관련 정보를 연계해 원하는 기술 정보와 연관성이 높은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 기기의 활용도가 늘면서 누구나 어디서든 ‘농사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서비스를 구축했다. 앞으로 농업인은 농업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농업 기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사로’에 수요자 관점의 현장 소통형 농업기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에게 맞춤형 기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업기술포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농업 기술 정보 유통 허브 ‘농사로’ 새 단장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정부3.0에 맞춰 농업기술포털 서비스 ‘농사로’(http://www.nongsaro.go.kr)를 1월 11일부터 새 단장한 내용을 선보였다.

농업기술정보 유통 허브 역할을 하게 될 ‘농사로’

농촌진흥청

겨울철 축사별 분뇨 관리 요령
제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다가오는 봄철에 품질 좋은 가축분뇨 퇴·액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겨울철 축종별 축사 운영 방법을 제시했다.

주로 개방형으로 설치한 소 축사는 북쪽과 서쪽의 방풍 시설을 점검하고 찬바람이 들이치는 방향에 벗짚 등 바람막이용 자재를 쌓는다.

축사 내 깔짚이 얼면 퇴비화 시간이 길고 퇴비 상태도 좋지 않다. 오줌이 고이거나 소 발이 푹푹 빠지는 경우, 추워지기 전에 새 깔짚을 깔아준다. 맑고 건조하며 온도가 높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한다. 습기를 줄이려면 눈이 녹은 축축한 날보다는 건조한 날이 좋다.

돼지와 닭 축사는 소에 비해 밀폐 정도가 높으므로 벽에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수리한다. 겨울철 적정 환기량 이상의 개구부는 비닐 등으로 막는다.

슬러리 돼지 축사의 경우 1월부터 3월 초까지 발생할 분뇨량과 슬러리피트의 용량을 비교해 슬러리피트 용량이 부족한 경우 미리 슬러리를 내보내 축사 내 환경을 개선하고 봄철에 반출하는 액비 품질이 좋아지도록 한다.

밀폐식 닭 축사는 적정 환기를 실시해 계분(닭똥)으로 인해 내부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배출된 계분이 잘 부숙(발효)될 수 있도록 퇴비사 보온에 유의한다.

평사 형태의 닭 축사는 깔짚 상태가 축축해지지

않도록 알맞게 환기 관리를 하고 바깥에서 눈이 녹은 물이나 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축사 외벽과 배수로 등을 점검, 관리한다.

겨울철에는 햇볕이 축사 온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므로 별을 가리는 물건이 없도록 해 가축분과 깔짚의 건조 효율을 높인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윤 축산환경과장은 “겨울철 축사 환경과 분뇨 관리는 가축의 생산성과 더불어 봄철 분뇨 퇴·액비 품질에 영향을 주므로 농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미래성장동력 확보 위한
지표관리위원 혁신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은 1월 15일(금) 대전 유성구 소재 대전충남지원 회의실에서 성과 지표 관리를 맡고 있는 전 지원의 평가팀장들과 함께 지표관리위원 혁신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등급판정 자율 품목인 계란 및 가공류의 판정물량 확대, 전 직원 대상 업무성과 개선을 위한 동기 부여 등 등급판정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혁신대회에서 축평원은 2015년도 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목표 달성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미진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2016년도 기관 경영평가 지표 달성

을 위한 지원별 핵심 추진사항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위생적인 계란 및 가금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객관적·과학적 평가기준 적용과 소비자의 품질에 따른 다양한 구입을 돕는 지표 제공 등 기관 역점 추진 현안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종운 원장 직무 대리는 “계란 및 가금류 소비 위축 예방, 등급제품 소비 확대 등을 이룰 수 있도록 기관의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해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더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품질혁신기법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성 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그동안 수급안정 사업운영 중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위생·안전관리 기준 강화, 소비자 관점의 제도개선 활동 등을 시행해 온 결과 2015년 소비자불만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aT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식품 안전관리를 점차 강화하는 데 발맞추고 환경과 수입 농산물의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비축농산물의 위생·안전관리체계 강화와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품질혁신기법 중 하나인 「6 Sigma 기법」을 도입하여 과학적 분석을 통한 구매규격 설정, 현

지 출장자 업무실태 평가 등 다양한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 7S관리”를 강화하여 비축농산물 보관, 판매,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또한 비축사업 품질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력하고 있다.

* 6 Sigma : 「식스시그마」로 불리며 품질개선과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품질혁신기법 중 하나임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 비축농산물 소비자불만 접수건수가 전년 238건에서 115건으로 52%가 감소하였으며, 불만 접수 업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년 485건에서 175건으로 64%나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aT 김동열 유통이사는 “aT는 향후로도 과학적 분석과 소비자 관점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비축농산물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인식 확대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2016년도 군 급식 축산물 확대
공급한다**

국방부와 농협은 ‘16년도 군 급식방침 및 급양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협의를 통해 군 급식 축산물의 급식기준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월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쇠고기는 1인 1일 기준량이 21g으로 1g 늘어난 약 1,000두(145톤), 닭고기는 67g으로 5g 늘어나 175만수(728톤), 계란은 매월 2개 증가한 23개를 공급키로 하는 등 연간 2천여 톤의 국내산 축산물을 추가 소비한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군납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축산 강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진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축산농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

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신선하고 안전한 국내산 축산물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방부와 농협은 군 급식 수입쇠고기 기준량 전량을 국내산 쇠고기로 전환하여 군 급식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증대를 견인하는 등 지난 45년간의 축산물 군 급식 숙원사항을 해소한 바 있다.



건강오리버거